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성탄절 축하음악예배

‘메시아’ 찬양으로 구주성탄을 축하

12월 23일(금) 오후 8시, 본당에서
600여명의 인원으로 연주는 개교회에서 최초의 일
온 가족이 함께 ‘찬양’ 속에서 맞는 성탄절로

매년 연말이 되면 국내의 각 교향악단들은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 이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터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다. 긴 고난을 뚫고 환희에 찬 송가를 부르는 교향곡이 연말과 연시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듯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으며 성탄축하음악 예배를 어느 교회나 다 드리게 된다.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축하 찬양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이 주는 의미와 기쁨을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이때 많이 연주되는 곡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거의 매년 이 메시아를 연주해 왔다. 그러나 메시아는 생각과 달리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곡이다. 전곡을 다 할 경우 3시간 가까운 대곡에다가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대규모를 요하는

합창단, 수준높은 독창자, 게다가 오케스트라 반주와 관악기의 솔로 등을 생각한다면 연주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메시아 연주를 했더라도 지극히 부분적으로 메시아 중에서 익히 들어오는 몇곡을 골라서 연주해온 했다. 그래도 그 감동은 유별났다.

금년도 성탄절을 생각하며 찬양위원회는 지난 찬양대 연합수련회를 끝내며 메시아연합찬양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메시아’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원 중 600여명 정도 독창자,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메시아’곡을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를 성탄절 축하 찬양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8일부터 토요일과 주일 각 2시간씩 연습에 돌입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저녁 각 파트별로 모여 연습하고 또 전체가 모여 연습하는 장기간의 연습에 대원들은 모두가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모여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12월에 들어서면서는 평일에도 모여 연습을 하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연주가 되도록 모든 임원과 대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들로 이루어진 ‘메시아’가 12월 23일(금) 오후 8시, 본당에서 그 막을 올리게 된다. 연주인원은 합창 520명, 오케스트라 60명 총 580명. 늘 연말이면 교회연합성가대의 ‘메시아’연주회가 있다. 금년도 12월 10일 열렸었다. 그러나 개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600여명의 합창단이 참여하여 연주하는 ‘메시아’는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기대도 크고 감동도 클 것이다.

성탄절이 왔지만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은 조용하고 유흥가와 장사속으로 요란한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태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전 가족이 함께, 남들은 왜 즐겁고 요란하게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떠돌며 노는 12월 23일 저녁에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까지 환하게 비추어 대는

본당에서, 2개월 이상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해온 예수님의 일대기를 찬양으로 승화시킨 ‘찬양의 밤’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강림, 수난, 영광’을 묵상하고 함께 구주탄생의 의미와 축하를 하는 성도들 속에서 보낸다면 그 이상의 성탄맞이는 없을 것이다.

지휘에 김영준, 오르간 반주에 임효선, 합창에 7개 찬양대에서 지원한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반주에 충현오케스트라, 독창자로는 소프라노에 박미애, 엘토에 박연숙, 테너에 장세완, 베이스에 최덕식이다.

연합찬양대 총연습

12월 22일(목) 오후 6시,

본당에서

메시아 연합찬양대의 총연습이 12월 22일(목) 오후 6시부터 본당에서 있게 된다. 이번 메시아 연주에 참여하는 대원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이날 총연습에는 합창과 독창, 오르간 반주 및 오케스트라 반주, 좌석 배치 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마무리 짓게 된다.

실업인선교회 총회

실업인선교회 정기총회가 12월 19일(월) 오후 7시 30분 경기도 광주 그로리아산장(0347-62-2571-3)에서 열린다.

1년 동안의 결산과 새해의 계획, 신임원 선출 등의 의제로 모일 총회는 또한 친밀한 교제도 겸하여 모이기에 회원 부부가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교회에 모여 함께 갈 사람은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오면 된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를 소개합니다

교육시작: 1995년 1월 8일, 매 주일 오전 10:30~12:45

하나님의 창조명령인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본 교회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 부장 박인세장로)에서는 내년 1월부터 8주과정(연중 6회)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 교육과정은 전문가 강의(1시간)와 반별 공부(1시간)로 진행되며, 수강 자격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결혼을 준비중인 남녀여야 한다. 12월 중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의: 장봉생 목사)

주	과 목	내 용
1주	결혼 이해	성경적 결혼관 정립
2주	사랑 확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 결정, 확인하는 법
3주	결혼 준비	혼수마련과 절제 의식
4주	가족 사랑	배우자 가족들과 바른 관계 맺기
5주	갈등 해소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제 갈등과 해결법
6주	역할 분담	가정의 가계운영과 역할 분담의 지혜
7주	사랑 열매	경건한 성생활을 통한 부부관계
8주	자녀 양육	자녀 계획과 태교, 출산

- 연중 매 주일 신규 등록을 받는다. (등록은 사무국과 예신부)
-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교우는 결혼신청 접수시 자연 등록케 된다.
- 교육시작: 1995년 1월 8일, 매 주일 오전 10:30~12:45



겨울나기 준비 교회 식당에서는 이번 주간이 겨울 동안 사용할 김장 준비에 바쁜 한 주간이었다. 지난 주부터 계속적으로 김장 준비를 해온 식당에는 각 교구 여전도회 임원 및 회원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김장일을 도왔다. 배추 3,900포기, 무 800개의 김장을 했다. 이번 겨울에도 맛있는 김치를 기대해도 될 것이다.

이 시간에는 세번째 인을 땀 때와 네번째 인을 땀 때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세번째 인을 땀

“셋째 인을 땀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5절) 셋째 인을 땀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색은 비애, 슬픔의 색깔입니다. 본문의 검은 색깔은 원문에 보면 잿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체를 태우면 나는 재의 색깔입니다. 그래서인지 장례식 때에 서양 사람들은 검은 색의 양복을 입습니다. 따라서 세번째 인은 바로 이 땅에 기근의 결과로 생겨질 슬픔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칼, 기근, 짐승, 온역의 네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특별히 생각할 것은 기근입니다. 세번째 인을 땀 때에는 기근이 이 땅에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경제계를 지배할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량을 배분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고 했는데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품귀현상이 일어나겠다, 굉장히 귀해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6절) 여기 한 데나리온은 디베로 황제 때에 군인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니다.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되, 혹은 보리 석 되입니다. 밀 한 되는 한 사람이 혼자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보리 석 되는 말 한 마리의 하루 식량입니다. 여기서 ‘보리쌀’이 아니라 ‘보리’라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으려면 보리를 빵아서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먹는데 이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일을 해도 하루 먹을 것 밖에는 별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양식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식 품귀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울로 답니다. 쌀도 저울로 달아서 팔고 콩나물도 저울로 달아서 팔니다. 그러다 보니 인심이 얼마나 박해가고 있습니까?

53-55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적어도 20%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약 50%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며 1년에 약 1,300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물론이고 또 요즘은 르완다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만큼 양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니다. 그런데도 지구촌의 한 쪽에서는 굶주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마음들이 부패되어서 식량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보통 우리에게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가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감람유 혹은 포도주를 영적인 음식으로 해석해서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육적인 음식은 점점 궁핍해지지만 영적인 음식은 아주 풍성해진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기근 때의 대응품인데 둘 다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 속에서도 쉽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다른 식량의 품귀현상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근 때 대응하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점점 값이 싸지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값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금은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자꾸 오라가고 반대로 쌀이나 밀 같은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점점 값이 싸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중현강단



일곱 인 재앙(2) (계 6:5-17)



신 성 종

<목사·당회장>

2. 넷째 인을 땀

“넷째 인을 땀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7절) 넷째 인을 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시체, 죽음, 온역의 색깔입니다.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온역은 전염병의 옛날 말입니다. 그런데 청황색은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도에서 페스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었습니까?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7절)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여기서는 사망을 인격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가는 곳에 전염병이 지나가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면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고 했습니다(8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분의 일이 죽습니다. 이것은 꼭 문자적으로 사분 일이 죽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죽게 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부분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되 제한된 권한만 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류 전체가 다 죽는 것

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고 했는데 검으로 죽겠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흉년 즉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으며, 사망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네로 황제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바로 이러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옛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었던 원형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자자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북한에 있

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들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라’ 하는 것이 그 사형명령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두 마리의 소에 붙들어 맨 후에 소로 하여금 양쪽으로 가게 해서 찢어서 죽이고, 또 어떤 때는 호흡하며 눈을 뜨고 있는 산 사람을 그대로 땅 속에 생매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서 부모들의 마음에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으로써 죽인다고 하는 이 얘기는 2000년전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인 재앙 같은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흉년, 질병 같은 이런 재난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니 이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민족이 거듭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롬 8:37).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회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파헤쳐봅시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의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일곱 인재앙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어떤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대해서

현 상 민

(목사, 찬양위원회, 제7교구 지도)

구주 성탄을 축하하면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찬양연합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연합찬양대는 합창 500명, 오케스트라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찬양위원장 김은호 장로님, 메시아 준비위원장인 이종석 장로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식을 제공해주신 권사님들과 여러 무명의 성도님들, 식사를 해주신 식당의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12월이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데 12월 23일(금) 저녁 8시에 우리 찬양대가 심혈을 기울여 찬양하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는 불신가족들과 주위의 불신자들도 모시고 와

서 들을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메시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곡해설을 하겠습니다.

〈곡 해설〉

고금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헨델의 이 '메시아'는 우리 나라에서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주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다. 영어식으로 '메시아'라고도 하며, '메시아'는 히브리어 발음이다.

헨델은 바하와 같은 해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 활동범위와 명성은 국제적인 것이었다.

후년(1726년)에는 영국에 귀화하여 왕실의 보호 아래 오페라 작곡에 전념했지만, 반대파의 방해와 그밖의 이유 등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실의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

았다. 쓰러졌는가 싶으면 또 다시 일어나서 그때마다 화제작을 썼다.

바로 이 '메시아'가 작곡되기 직전에도 그는 가난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다. 1741년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무렵이다. 이때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은 것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귀족들인데, 자선음악단체인 '필하모니 협회'에서 연주하게끔 그에게 신작을 의뢰해 왔던 것이다.

이 후의(厚意)에 답하여 헨델이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였던 것이다.

헨델은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침식을 잊고 열중하는 성미였다. 이 '메시아' 때도 마찬가지여서, 전 3부 약 2시간 반을 요하는 초대작을 불과 22일(3주일) 동안에 완성했던 것이다. 좀 더 세분하면 제 1부가 7일간, 제 2부가 9일간, 제 3부가 6일간 즉 1741년 8월 22일에 착수하여 9월 14일에 탈고했다.

헨델 자신이 이 작품을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어서, 어느 날 아침 보이가 그에게 커피를 가지고 갔더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아리아의 부분을 작곡하고 있었다고 한다.

초연은 완성된 이듬해인 1742년 4월에 더블린에서 행해져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입장권은 매진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청중들은 장소를 너무 차지하는 복잡한 복장을 하지 말라는 신문 광고까지 나갔을 정도였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1743년 3월에 공연되었는데, 그때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교적 음악을 일반극장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뒤도 몇차례 연주되었지만, 결정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7년 뒤인 1750년의 일이었다.

런던 초연 때는 영국 황제 조지 2세가 친히 관람했다.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에 접어들자 황제는 감격한 나머지 기립했기 때문에 측근들과 청중들도 그에 따라섰다. 이 습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곡의 대본은 헨델의 친구인 제넨즈(C. Jennens)가 성경을 바탕으로 쓴 것인데,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구약 시대의 유대에서는 예언자, 제사장, 왕들은 다 기름을 부어받는 관습이 있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 받고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이므로, 이 '메시아'는 '구세주'이다.

곡은 제 1부가 '메시아 오실 예언'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과 그 성취가 아름답게 이야기된다. 서곡부터 제 19곡까지인데, 여기서는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제 13곡 '전원교향곡'이 아주 청아하고 아름답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밝고 온화한 느낌이 흐르고 있다.

제 2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이 '메시아'는 합창이 아주 많은 것이 특색이다. 특히 제 2부에서 제 20곡부터 제 42곡에 이르는 전 22곡 가운데서 그 절반이 합창곡인데, 그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다.

제 21곡 엘토의 아리아 '주는 모욕 받으셨네'는 헨델이 울면서 작곡했다는 유명한 대목으로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제 22곡 '진실로 주는 우리의 슬픔 받으셨네', 제 24곡 '우리는 양떼같이 헤매였네' 등 2곡도 아주 유명한 합창이다. 제 31곡의 합창 '문들아 너의 머리를 돌려', 제 36곡 소프라노의 아리아 '오 아름다운 그 발이여' 등 2곡도 아주 은혜스러운 곡이다.

이러하여 드디어 제 42곡의 합창 '할렐루야'가 웅장하게 노래되면서 제 2부가 끝난다. 전체적으로 극적 긴장을 품고 있으며 아주 감동적이다.

제 3부 '부활에 대한 확신'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으로 일관된다. 우선 제 43곡 소프라노의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니'로부터 시작된다. 이 제 3부에서 가장 은혜스런 대목은 뽀니뽀니 해도 마지막 제 51곡의 대합창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이 곡은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제 3부분의 '아멘 코러스'가 가장 멋지다. 이 대목은 '아멘'이라는 말만 가지고 엮여가는 웅장한 푸가인데, 베이스가 주제를 노래하고 테너, 엘토, 소프라노가 이를 모방한다. 이 '아멘 코러스'와 '할렐루야 코러스'는 합창음악의 정수라고 할 만한 걸작이다.

금년에는 구세주 예언과 탄생을 찬양한 1부 전체와 2부의 할렐루야, 3부의 나팔이 울리리라, 죽임당하신 어린양과 아멘만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꿈꾸게 합니다.

대학부에서 내년도에 팀장으로 「성령비전 2000」을 향하여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학부에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부터 팀장훈련을 시작해서 약 50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은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통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기도제목과 사역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기에 또한 이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하고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들을 통하여 퍼져나갈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갖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 현대 이후(post-modern)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사람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삿 21:25)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비전 2000을 꿈꾸며

박 세 용(대학부)

가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계속되어감에 따라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전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팀장들은 각자가 95년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역의 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사회개혁, 그리고 통일준비와 중보기도사역 등 다양하게 팀사역을 결정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여야 할 곳들을 보였습니다. 병원전도로, 고아원 사역으로, 길식자들을 위한 사역, 야학으로, 찬양으로 이처럼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우리날에서 고

주권과 그 나라와 의를 꿈꿉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영혼 사랑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만능의 사회속에서 서로의 시간과 재물을 나누는 참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대학부, 성령님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95년을 기대합니다.

팀장으로서 골로새서 1장 29절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말씀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와 대학부를 통하여 나타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대학부 회원들이 「성령비전 2000」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꿈꾸며, 글을 마칩니다.

이런일은 고침시다

지나친 친밀함의 표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주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다가 교구가 같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연령이 비슷하다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일은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친밀함이 공중석상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표현될 때 주위에 듣는 사람들과 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를 부르는 모습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교회는 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소원한 사람도 있고 적당하게 예의를 지키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과없이 나타내는 친밀한 표현을 듣고 있노라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본인은 민망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피며 교회는 적절하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저 친하다고 마구 이름만 부르는 것 보다 000집사님, 000권찰님, 000자매님 등의 표현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로 너무 친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반말을 하는 표현들. - 이런 일은 고침시다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는 20일(화) 오후 7시에 만나홀에서 '회고와 전망의 밤'으로 모인다.
- ◆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늘 오후 연습 후 찬양대의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 ◆ 중등1부와 2부는 연합으로 12월 24일에 성탄절 행사를 연다. 시간은 오후 3시, 교육관 205호에서 교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이다.
- ◆ 중등3부는 오늘 성경퀴즈 연말 결산대회를 개최한다. 출제범위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이다.
- ◆ 고등부는 지난주 새친구 환영회 및 생일축하와 중창페스티벌 경연대회를 열었다. 중창페스티벌은 다음주(25일)까지 계속된다. 경기여고 들로스와 예루살렘 신입부 등 많은 팀이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코이노니아의 밤을 12월 24일 개최한다. 많은 기도와 준

비로 마련한 자리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대학부는 95 열린마당을 12월 22일 목요일에 연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메추라기홀에서 모이는데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대학부의 미래를 함께 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청년1부는 12월 24일(토) 오후 3시부터 명동으로 총동원 전도를 나간다. 화요일마다 진행되어 왔던 명동전도를 24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로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 사랑부에서는 차량봉사할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다. 사랑부 특성상 버스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 새가정부는 제1회 겨울수련회를 2월 4-5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주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이며 강사는 박정규 목사이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신성중 목사 : 19일(월) 임시노회 참석, 20일(화) 정신여고 체플 인도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사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결산하고 오는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뜻있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사 소의 되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4.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드시사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공무원들과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5.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 주시사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계를 교구로 삼고 선교사명을 감당하시고저 진액을 쏟으시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을 위시하여 남녀 교역자님들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총현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사명을 받고 이곳 뉴질랜드에 정착한지도 벌써 1년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언어와 풍습이 다른 문화권에도 익숙해져가고 아이들도 현지 생활에 다행히도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업에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도와 염려로 성원해주신 총현의 모든 형제 자매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발전되어 학생들을 합하여 70여명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교회로서의 면모를 점차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중추절)에는 제2차 예수사랑 큰잔치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민 오신 불신자 다섯 가정과 부모 형제를 떠나 이역만리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는 차원에서 모였습니다.

마침 믿음의 대선배님이시며 22년간

구역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던 조희철 장로님과 조신애 권사님 내외분께서 LA에서 이곳 아드님 가정을



과 찬송태일을 보내 주시고 사랑의 전화와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주신 김

구의 최남단 뉴질랜드에서 김형선·한영자 집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제목

1. 이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말씀사역과 목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영혼구원, 조국부흥, 이민정착, 2세교육, 세계선교에 한 몫을 감당케 하소서.
2. 문서 선교지 '열만한 물가'가 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잠자던 영혼들을 일깨워 경건한 생활이 계속되어 영적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3. 12월 전교인 여름수련회에 은혜 충만케 하소서.
4. 95년엔 두배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5. 전도된 새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6. 성령충만케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더욱 발전이 있게 하옵소서.

● 뉴질랜드 / 김형선·한영자 선교사 ●

총현교회 교인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고국을 떠나 이곳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절실히 느끼고 감사할 뿐입니다

방문차 오셔서 이곳에 이민 와 흠어져 사는 총현가족들과 더불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을 중심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보아 일을 맡기시고 또 감당하도록 능력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어느곳에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서 맡겨진 책임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항상 하나님과 조국과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지금까지 자신과 가정과 조국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풍작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을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7명을 교회로 인도하여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열 한달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총현 설교태일

석운 권사님, 박덕양 안수집사님, 한민수, 성열송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루디아 15지회 여전도회에서 성경·찬송 합본 10권을 보내주셔서 전도용으로 요긴하게 모두 사용되어 큰 몫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당산구역 한민수 교회자 집사님 내외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현교회 교인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고국을 떠나 이곳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절실히 느끼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과 열정위에 주옥같은 말씀과 바른 교육과 훈련 속에서 신앙의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시온산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될 약속받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려한 힘들이나 온 정성을 다해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건한 삶이 되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며 다음 소식을 드릴 때까지 총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 가정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



▶ 예수사랑큰잔치를 마치고 온 가족과 함께(조카네 식구와 함께 열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서낭송, 신앙강론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총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람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